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원장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외부인사	성 명	김태현 김은경 김영혜 윤현주 김영주
출장기간	▪ 김태현 원장, 김영혜 연구위원: 2011년7월7일 - 7월13일 (5박 7 일) ▪ 김은경 팀장, 윤현주 연구원: 2011년 7월5일 - 7월13일 (7박 9일) ▪ 김영주 문화일보 기자: 2011년 7월 5일 - 7월8일 (2박 4일)		출장지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출장목적	○ OECD 원조효과성 작업반 사전회의참석 및 주제발표 ○ 유엔사회개발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논의 ○ 기관 방문, 국제회의 참석 및 전문가 면담					
경비부담	약 2700 만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면담자	협의사항			
OECD 외 3 기관		[회의참석 및 주제발표] 원조효과성작업반 (WP-EFF)  [전문가 면담] 앤 스코엔스타인(Anne Schoenstein)  [전문가 면담] 패티 오닐 (Patti O' Neill)	사전회의 참석 및 주제발표 원조효과성(WP-EFF) 본회의 참석  HLF-4 와 젠더어젠다화 논의  세계 여성기관 동향파악 및 협력사업논의			

	[기관방문] 프랑스 파리 Equilibres & Populations (E & P) 방문  [기관방문] 유엔인권고 등판무관실	여성사업 및 젠더와 개발, 관련 사업 및 정책, 워크숍 등 동향파악, 자료수집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한 향후 협력강화 방안 모색
	[공동연구논의] 유엔사 회개발연구소 방문 및 협동연구 논의	공동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및 협력방안 논의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2011. 7. .

출 장 복 명 자 : 김은경 국제개발협력팀장

# **아태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원조효과성과 젠더 [출장보고서]**

2011.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개 발 협 력 팀

# 아태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 원조효과성과 젠더 출장 보고서

### [OECD 원조효과성작업반 회의 주제발표 및 전문가 면담]

## 2. 개 요

- 출장기간: 2011.7.05 (화) – 13 (수), [총 7박9일]
- 출장지: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 출장자: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영혜 연구위원 [7.7 – 7.13] – 5박 7일  
김은경 국제개발협력팀장, 윤현주 연구원 [7.5 – 7.13] – 7박 9일  
김영주 문화일보 기자 [7.5 – 7.8] – 2박 4일  
(기자의 동행취재는 주제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위함. 첨부자료 1, 2 참고)

## 3. 배경 및 필요성

- OECD 원조효과성작업반 사전회의 주제발표
  -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아태지역 양성평등 인프라 강화는 올 11월말 개최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젠더 의제”가 적극 반영이 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
  - 국제개발협력팀은 아태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및 HLF-4 논의주제에 대한 젠더관점의 의제개발 과제를 통해 축적한 한국개발과 여성관련 사례를 모아 7월 EXCOM의 사전회의에서 발표하고자 함. (6.28일 외교부 공문 참고: 국제개발-365)
- 아태 양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 원조 효과성 논의 동향 파악 및 전문가 면담
  - 원조효과성 작업반 본회의 참석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여성역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전문가 pool을 축하고자 함
- 유엔사회개발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논의
  - 유엔사회개발연구원은 2010년부터 본원과의 공동연구에 관심을 표현해 왔음.
  - 2011년-12년 “정부의 성인지적 정책변화 계기(약칭)”관련 연구주제는 “아태

지역 양성평등 인프라 강화사업”을 통한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의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유용한 연구로서 UNRISD측의 제안서에 나온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연구팀은 파리에서의 7월 Excom 사전회의 및 본회의 직후 제네바로 이동하여, 답방과 구체적인 협동 연구안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함.

#### 4. 출장 목적

- OECD 원조효과성 작업반 사전회의참석 및 주제발표
- OECD 젠더넷 & Betteraid 관계자 면담
- 유엔사회개발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논의

#### 5. 세부 일정표 (안)

날짜	세 부 일 정
7월 05일 (화)	인천 출국 (KE901, 13:40) → 파리 도착 (18:20) [김은경, 윤현주, 김영주 기자]
7월 06일 (수)	OECD 원조효과성작업반(WP-EFF) 사전회의 참석 및 주제발표
7월 07일 (목)	인천 출국 (KE 901) → 파리 도착 (18:20) [김태현, 김영혜] [WP-EFF Excom] 본회의 참석 - 1 일차 회의 [김은경, 윤현주] [전문가 면담] 패티 오닐 (Patti O' Neill) 외부 인사 1 인 출국 [김영주 문화일보 기자]
7월 08일 (금)	[WP-EFF Excom] 본회의 참석 - 2 일차 회의 [김은경, 윤현주] [전문가 면담] 앤 스코엔스타인(Ane Schoenstein)과 Better Aid 회원 3명 [기관방문] 프랑스 파리 Equilibres & Populations (E & P) 방문
7월 09일 (토)	프랑스 출국 (TJV, 15:04) → 스위스 제네바 도착 (18:14)
7월 10일 (일)	휴일
7월 11일 (월)	[기관방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공동연구논의]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방문 및 협동연구 논의
7월 12일 (화)	스위스 출국 (KE934, 21:35)
7월 13일 (수)	인천 도착 (15:20)

- 일시 및 장소: 2011.07.06 (수), 10:30 – 12:00, 파리 OECD 본부 (CC20실)
- 주제: 한국발전사례에서의 젠더와 시민사회 참여 (Gender in Korea Development Cases & CSO Partnership Building)
  - 발표자: 김은경 연구위원, 국제개발협력팀장
- 세부 내용
  - 우리나라는 이러한 젠더와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이어나가기 위해 7월의 원조효과성작업반 전체 회의 시 UN Women과 공동으로 “젠더와 개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개발을 위해(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Towards Effective, Inclusive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젠더관련 부대행사(side events)를 개최함.
    - OECD DAC회원국, 파트너국, UN Women, 세계은행, OECD 사무국, AWID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표들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HLF-4에 젠더이슈를 포함시키기 위한 중점 과제 발굴과 HLF-4 결과문서에 젠더에 관한 평가메커니즘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짐.
  - 국제개발협력팀은 아태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및 HLF-4 논의주제에 대한 젠더관점의 의제개발 과제를 통해 축적한 한국개발과 여성관련 사례를 모아 7월 OECD 원조효과성작업반 전체회의에 앞선 사전회의에서 발표함.
    - 국제개발협력팀은 외교부의 요청하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의 김은경팀장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젠더(Gender in the Korean development case)”라는 주제발표에서 직업훈련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례와 새마을 운동과 Livestock bank project의 여성 자치기관 사례를 발표함.
    - 한국 사례를 통해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한국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 공유함. 또한, 양성평등은 목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효율적인 전략이기도 하다고 언급함.
  - 토론자로 나온 AWID대표는 한국정부의 젠더이니셔티브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이번 부산총회에서 젠더이슈에 대한 강력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며,

양성평등 논의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함.

- 나아가 성주류화는 양성평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정기준의 한 수단이라는 하나, 더 나아가 예산수립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어 구체적 젠더 관점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양성평등은 미시적으로는 정책일관성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더 폭넓은 개발효과성 맥락에서는 개인의 삶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젠더 중립적인 분야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젠더는 모든 MDG목표와 긴밀하게 연결시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입장을 밝힘.



- 국제개발협력팀은 OECD 원조효과성작업반 사전회의에 참석한 OECD-DAC Gendernet 담당자와 Better Aid의 부산개발원조총회 (HLF-4) 준비를 위한 CSO-GENDER연락관이자 AWID의 옹호담당자 및 Better Aid 회원들을 만나 면담을 나눔
- 면담자 정보:
  - 패티 오닐 (Patti O' Neill), OECD-DAC GENDERNET 사무국 담당자
  - 일시 및 장소: 2011년 7월 7일, OECD본부 프랑스 파리
- 논의 내용
  - 젠더넷 사무국 및 관련 젠더 분야 전문가들은 2005년 파리선언서가 발표된 이후로 줄곧 파리선언서에 담긴 5대 원칙이 어떻게 하면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왔음을 언급함. 이러한 노력은 결국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분야에 대한 원조 우선순위가 올라 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며, 결국엔 여성 및 젠더분야에 투자되는 원조 총액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을 언급함. 전문가들은 여성분야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최소한의 투자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UN Women 및 다양한 여성분야 전문가들은 여성 및 젠더분야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촉구 한 바 있음.
  - 2011년 파리선언 이행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며, 젠더부분에 대하여서는 양성평등과 주인의식, 양성평등과 결과중심의 원조운영, 양성평등과 상호 책무성 등 3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고 함. 그 결과 효과적이고 성과달성을 위한 원조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여국이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인지 통계를 사용하고, 공여국은 성인지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파트너국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조사됨.
  - 부산회의 이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각각의 원조 공여국 및 공여기관이 젠더 분야에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수치화 시키는 것과, 수원국이 각국별 발전 우선순위에 맞추어 원조 자금을 젠더 부분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 작업이 남아있음을 언급함.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해 연구자들 및 원조 관계자들 관심은 원조의 효과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관련 젠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함.
  - 2008년 아크라 회의에서 좀더 주목받기 시작한 젠더의 의제가 한국 부산에



서 있을 제 4차 회의에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지금까지 점점더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노력의 챔피언이 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나눔. 또한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과 의장국으로서 젠더에 대한 관심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면담자 정보: AWID와 Better Aid 회원 4명

○ 앤 스코엔스타인: AWID 여성인권관련 개발행위자 옹호활동담당자

○ Better Aid 회원 3인:

- Urantsooj Gombosuren(유란트수이), Chairperson,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Roselynn Musa(로잘린), Programme Manager, African Women's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Network (FEMNET)
- Monica A. Novillo Gonzales(모니카), Responsable Programa Incidencia, Coordinadora de la Mujer

○ 일시 및 장소: 2011년 7월 8일, OECD본부 프랑스 파리

□ 논의 내용

○ AWID는 전세계 약 700여개 이상의 개발관련 기관들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합체로서, 개발협력과 원조효과성에 대해 고민하고, 좀더 나은(better) 도움(aid)을 지향하고자 연구, 모니터링,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부산에서 있을 제 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위해 CSO(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및, 금번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논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준비하며 현재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음. 오늘 면담에 참석한 4인은 각각 다른 NGO 직원이자 동시에 BetterAid에서 젠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음. 특히 앤의 경우 연락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Better Aid의 젠더그룹에서 논의된 내용과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상호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팀 연구진은 Better Aid와 함께 HLF-4관련 준비 논의 및 관련 행사에 대한 회의를 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본 보고서에서 제외함.

○ Better Aid의 7월 회의장에서 배포된 자료 “Key Demands from Women’s

Rights Organizations and Gender Equality Advocates: To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Busan, Korea, 2011)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2012)”의 내용에 대해 공유함.

- 주요 내용은 HLF-4에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 문제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는 대안적 개발협력구조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개발협력의 틀은 OECD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UN내에서 형성 되어 좀더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을 포함 하고 있음.
- 2008년 아크라에서의 3차 회의 이후에 OECD-DAC의 논의틀에서 시민 사회의 참여가 향상되었음을 인식하지만,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개발협력포럼(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와 같은 더 넓은 논의의 장에서도 포함이 되었어야 함을 지적함.
- 현재의 제한적인 구조를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매커니즘이 있어야 함을 주장함.
- 또한 7월까지 논의되고 있는 부산4차 회의의 결과문서 초안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부산에서 합의될 모든 개발협력 논의의 틀에는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에 기반을 둔 논의가 되어야 함을 역설함. 특히 국제협력의 노력이 개발도상국의 분리/분열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여성의 권리 및 젠더, 사회, 환경정의의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고 촉구함.
- 원조 효과성을 넘어서서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개발협력체제는 국제인권표준에 바탕을 두고, 여성의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이를 바탕으로한 개발전략과 빈곤퇴치전략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함.

### 3

## Equilibres & Populations (E & P)

- 기관소개: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개발회의,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2000년 Millennium Summit(새천년세계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적인 공약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의 방향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 국가의 성생

식보권 및 개발과 여성의 참여와 권리 촉진 활동을 추진해 왔음. 브루키나 파소, 세네갈, 말리 등에 옹호 캠페인 활동과 현지 NGO의 역량구축 활동을 하고 있음.

○ 면담자: 니콜라스 레노 (Nicolas Rainaud), Operations Officer

○ 일시 및 장소: E&P 본부, 프랑스, 2011년 7월 8일

□ 논의 내용:

<젠더와 개발부문>

○ 여성지위 향상은 권리문제와 직결됨. E&P 의 지원프로젝트는 advocacy, 조정활동의 형태로 수행되며 모성사망을 예방, 여성할례 문제의 해결을 지원함. MDG 3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증진”의 달성은 프랑스와 전 세계의 개발원조의 주요 목표가 되는 빈곤 감소에 필수적임. 남성과 여성간의 지위에 평등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개발도 없을 것임.

○ E&P 는 프랑스의 개발협력에 양성평등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법을 촉진하는데 노력해왔으며, 이의 성과로 2007년 말 이전에 정부가 채택한 ‘젠더와 개발’의 사전전략개발, 2009년 채택된 ‘젠더와 경제’ 우선연대기금(P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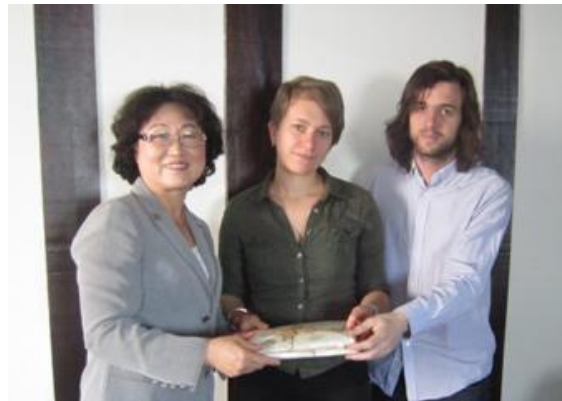
- 특히 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새로운 인구학적 전망은 가족계획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있음. E&P는 계획된 임신과 피임약 공급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정치사회적 이슈화 및 옹호의 필요성>

○ 원조프로그램의 실패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정치 및 사회적 동원의 결여에 기인함. 아프리카 개도국의 해당국민들은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갖지 못함. E&P 는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가 되고 또한 효율적인 지원의 수립을 보장하기 위해 원조 프로젝트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옹호 활동을 수행함. 원조관련 현지기관은 프로그램 완료 시 그리고 재정후원기구의 지원기간 만료 시, 원조를 통해 실행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격기도함. 이를 고려하여 E&P는 주요 의사결정의 순간에 수원국의 국가와 지역차원에서의 의사결정자를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가족계획 사업에 여성의 보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인적자원개발>

- ‘인구와 개발’ 접근법은 사람이 보건, 교육, 식량과 노동에서의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잠재력을 펼치고 성장을 할 수 없음에 중점을 둬. ODA 예산은 충분하고도 전문적인 현지 인적 자원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적절히 사용될 것임. E&P는 세가지 점에서 현지의 프랑스 친화적 의사결정자들과의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음. 1) 현지에서의 프랑스ODA가 기존에 약속한 공약과 개도국 국민의 요구에 의거하여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모니터링), 2) 프랑스 개발협력이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이 사업을 담당하는 현지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도록함, 3) 개도국의 인적자원을 고용하고, 현지의 생활 및 근로 조건을 고려할 것. 이렇게 위의 3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E&P는 개도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도모하고 폭넓은 사업에 이들 이슈들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정부 및 NGO와의 협력>

- ODA 사업과 관련하여 E&P 는 아래와 같은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1) NGO가 사업 목표 및 대상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함
  - 2) 정부와 협력 시,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소규모의 프로젝트가 점차 발전하여 큰 규모로 확장되도록 독려함. 또한 해당 개도국의 국가 정책과 부합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성공적인 사업이행에 위한 조건이 지역차원에서 준수되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강화된 지원을 위해 옹호 활동을 수행함. 특히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중요시함.

### <정보 및 인력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 정치적 네트워크로서 프랑스 의회 특히 의회내 “인구와 개발” 학습반, 유럽 의회, 유럽의회 포럼(브뤼셀), 서아프리카 국가의 의회의원네트워크 등의 의사결정자들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함.
  - 2009년 유럽의회포럼과 협력하여 4개국 8명의 의회의원들이 모성사망을 감소관련 주제에 대한 사업현장 방문을 조직한 바 있음. 현지 행동주체들과 면담,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옹호 캠페인을 위한 관련자료를 수집하도록 함.
  - 현지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NGO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함. 현지의 제도와 의사결정자와의 적법성을 제고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함.
- 옹호활동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주재 140여개의 NGO 기관으로 구성된 "Coordination SUD" 과 함께 연대활동을 하고있음.
  - Coordination SUD: [www.coordinationsud.org](http://www.coordinationsud.org)
- E & P는 프랑스 ODA분야의 3개 위원회(ODA, 젠더, 보건)에 참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 및 유럽의회 선거에서 NGO매니페스토를 채택하도록 로비활동을 펼침.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보건’ 2개 핵심요소를 포함하도록 촉구함.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G8 정상회의에서 젠더 및 모성 및 아동보건에 좀더 명확히 채택하도록 요청함.
- 개발원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동원 및 참여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 프로젝트 대상인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히 사업을 통해 명시된 이행 목표와 이에 대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수혜자의 참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과정과도 연계됨.

- 연구와 실제간의 연계가 중요하며, 이에 연구와 사업을 동시 수행하는 것의 효과성과 중요성을 강조함.

#### <예 산>

- E&P의 예산은 개인재단과 국가/국제 기구 자원에서부터 충당됨. 프랑스 ODA 예산은 2008-2009 년간 현재 17% 증가함. 이는 89억 유로에 달함. OECD 국가중 2위, EU 국가중 1위를 기록한 바 있음. 그러나 공언한 연간 목표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장기 차관으로 구성되며 무상원조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
  - E & P는 개발을 저해하는 2개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위해 국가/국제적 의제인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 및 불평등 근절' 특히 '여성 불평등'을 위해 국회로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예산할당이 증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제4차 개발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 (HLF4, 11월 한국 부산) 준비 관련>

- 프랑스 개발 NGO의 일원으로 HLF-4 총회의 CSO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E & P는 본원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본원의 ODA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호교류하기 원함.
  - 세부사업논의내용에 대해 외부공개를 하지않음.
  -

## 4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 □ 기관소개: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성 증진 방안 제안된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를 통해 생겨난 기구.
  - 주요 업무: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인권센터의 전반적인 감독의 수행, 발전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증진, 인권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 및 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 지원 등.

-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엔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지원/예방/대책에 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연차보고 의무를 지님.

❑ 면담자: 이샤 디판 (Isha Dyfan), Chief of Women's Rights and Gender Section

❑ 일시 및 장소: OHCHR-Palais Wilson (본부), 2011년 7월 11일

❑ 논의 내용:

○ 본원 소개 및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소개

○ UNHCR 소개 및 젠더 부분에 대한 소개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부, 지역본부와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운영됨. 본 사무소에서는 지역젠더자문관 4명이 아태지역, 남동아시아, 서아프리카, 뉴욕소재 4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서로 협력하고 젠더통합을 위한 노력을 수행함, 연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호 영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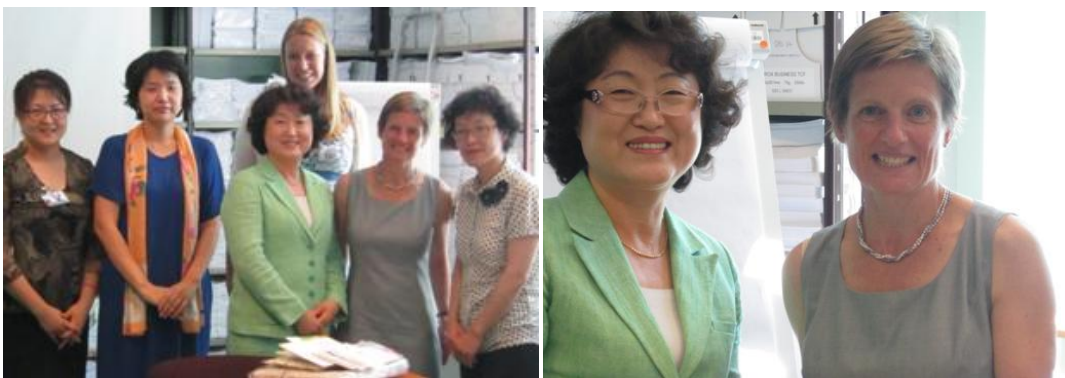
- 중점활동영역: 국가인권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역별로 연간활동보고서 발간, 지원활동과 이행상황을 점검, 인권관련 상황정보교환.

○ OHCHR의 여성인권과 젠더 담당국은 인권활동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정역할을 함. CEDAW 보고서, 주요기관 UN W, UNFPA, UNDP와의 여성인권관련 연계활동 수행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인신매매, 분쟁 및 취약지역 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 차별에 대한 구제 (impunity) 부문.

○ 본원 개발협력사업지역 및 사업관련 세부 논의: 관련 부분은 내부 자료임으로 외부공개를 하지 않음.



- 일시 및 장소: 2011.07.11 (월), 15:00 – 17:00, 제네바 유엔사회개발연구소
- 논의안건: 공동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및 협력방안 논의
  - 관심주제: “Understanding Gender-Egalitarian Policy Change: When and why do states respond to women’s claims-making?” (약칭: 정부의 성인지적 정책변화 계기)
  - 참고자료: UNRISD 기획안 (공문 참고: 국제개발-321)
- 배경 및 필요성:
  - 유엔사회개발연구원의 관심 주제는 3가지로 “비정규노동(약칭)”, “불확실한 미래와 사회발전(약칭)”, 그리고 “정부의 성인지적 정책변화 계기(약칭)”, 그 중에서 세번째 주제는 아태지역 양성평등 인프라 강화사업을 통한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의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로서 UNRISD측의 제안서에 나온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연구팀은 파리에서의 7 월 Excom 사전회의 직후 제네바로 이동하여, 답방과 구체적인 협동 연구안에 대해서 개발함.
  - 세부논의내용은 사업기획단계의 중요한내용 임으로 외부공개를 하지않음.





## 문화일보

2011년 07월 22일 금요일  
009면 사회

# OECD 세계개발원조총회 앞둔 한국 ‘양성평등 명문화’ 주도

## 파리 본부에서 사전회의 11월 부산회의때 구체화

■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향후 국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여성의 권익을 위해 지원을 받는 국가가 ‘양성평등지원 계획안’을 만들도록 규범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 지원사업에서 여성빈곤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나 구체적인 규범화 논의가 이뤄지진 이번이 처음이다. 규범화될 경우 국제 지원사업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우리 정부가 주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22일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11월 부산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는 국제 지원사업에서 빈곤여성 지원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박은하(49) 외교통상부 개발

협력국장은 “‘OECD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국 대표들과 유엔여성기구, 세계은행 OECD대표부 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부산회의에서 양성평등 이슈가 의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앞서 지난 6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사전회의에 직접 참석했었다.

OECD개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2억명의 빈곤인구 중 70%가 여성이고 5억5000명 위킴푸어(근로상태의 빈곤자) 중 3억3000명이 여성이다. 8억명의 문맹 인구 중 70%도 또한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OECD 국가는 국제 지원사업을 벌이며 지원을 받는 빈곤국이 지원금을 빈곤 여성문제 해결에 쓰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었다. 오는 부산 총회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바꾸고 국제 지원이 빈곤 여성문제 해결에도 고르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파리=김영주기자 everywhere@

## 문화일보

2011년 07월 22일 금요일  
009면 사회

### “女경제력 강화 선언 채택될 듯”

#### 박은하 외교부 국장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활동 참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의’에서 기조발언을 맡은 박은하(49·사진)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은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를 위한 원조’가 아니라 경제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OECD에서 여성 문제는 보건, 환경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며 “개도국 여성들의 교육을 1년 연장하면 국가총생산(GDP)이 2~3%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따라서 상승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전 세계의 절대 빈곤층 70%가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이 빈곤에서 탈출하면 보건이나 환경 문제 해결도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이번 부산 총회에서는 여성 경제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도국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원조’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도국이 경제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원조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기자